

소단원
본문 활동지

2. 문학의 이해
(2) 하늘은 맑지만

1학년 반 반 이름 <원문 특수> 교과서 82~129쪽

소설의 시대적 배경과 등장인물

1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자.

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

-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'동구미'
- 고갯간에서 고기를 종이로 말아 파는 모습
- '자전 마술 장, 온전 뱀 낚, 일 원'과 같은 화폐 단위
- 수신 시간

①

() (1930년대)
을/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.

2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보자.



■ 문기 ■

- 착하고, 잘못을 누우릴 중 말.
- 소심하고 낙락하여, 동기가 부족함.
- ()하여 다른 사람의 말에 잘 넘어가는 편임.

■ 수만 ■

- 자신에게 이롭도록 꾀를 부리는 악고 ()한 성격임.
-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.



■ 상준 ■

- 가족을 여겨는 마음이 깊음
- 올바른 가치관을 지녔으며, 조카를 바른길로 이끌고자 ()하게 대함.

소설의 중심 사건

3 다음 그림을 보고, 빈칸에 사건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, ①-④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보자.



고갯간에 심부름 갔다가 거스름돈
을 더 받음.



병원에서 깨어나 심준에게 자백함.



→ ① - () - () - () - () - () - () - ④

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

4 이 소설에서 문기가 겪는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정리해 보자.

갈등의 원인	문기가 심부름 갔던 고깃간에서 ()을/를 더 받음.
문기의 () 갈등	수만이의 꼬임에 넘어가 거스름돈을 씌. → 삼촌에게 거짓말을 하여 잘못을 감춤. → 양심의 가책을 느껴 거스름돈으로 산 물건을 버리고 남은 돈은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짐. → 죄책감에서 벗어나.
문기와 수만이의 () 갈등	문기 이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임. ↔ 수만이 돈을 주지 않으면 모든 사실을 밝힐 것임. ↓ 문기는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이에게 줌.
문기의 () 갈등	숙모의 돈을 훔친 일과 자기 때문에 누명을 쓴 점순이 일로 괴로워함. → 탐임 선생님에게 잘못을 고백하려고 했지만 말하지 못함.
갈등의 해결	()을/를 당한 뒤 삼촌에게 모든 잘못을 자백함. → 마음이 맑아지며 몸도 가벼워짐.

제목의 의미

5 다음은 문기의 내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절정의 일부이다. 이를 바탕으로 제목 '하늘은 맑건만'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.

언제나 다름없이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문기는 어쩐지 그 하늘조차 쳐다보기가 두려워졌다. 자기는 감히 뒤틀린 얼굴로 그 하늘을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싶었다. 언제나 다름없이 여러 아이들은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고 마음대로 자껄이고 마음대로 즐기건만 문기 한 사람만은 어둠과 같이 컴컴하고 무거운 마음에 잠겨 고개를 들지 못한다. 무엇보다도 문기는 전날처럼 맑은 하늘 아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다. 뒤틀린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, 뒤틀린 남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었다.	
↓	
'하늘'의 의미	· 양심을 속인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문기의 마음과 대조를 이룸. · 하늘을 뒤틀린 바라볼 수 없었던 주인공의 괴로운 심리와 관련지어 볼 때 '하늘'은 맑고 깨끗한 마음, 즉 ()을/를 의미함.